

판문점을 소개합니다



Panmunjom



통일부
통일교육원



판문점을 소개합니다

- 04 판문점 개요
- 06 판문점 히스토리
- 09 장벽을 넘어 '사람'이 넘나드는 통로
- 10 군사적 공간에서 남북 간 대화와 접촉의 장소로
- 11 한반도 평화를 견인하는 평화관광의 명소
- 13 견학 코스 안내
- 14 자유의집
- 16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T2)
- 18 공동기념식수 장소
- 19 도보다리
- 21 평화를 향한 만남의 '다리'가 되다

판문점 개요

- 판문점은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상에 있는 공동경비구역(JSA)의 별칭이다.
- 군사정전위원회는 1953년 10월 제25차 본회의에서 군사정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구역에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의 공동경비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고, 이 합의에 따라 동서 800m, 남북 400m에 달하는 정방형의 공동경비구역이 만들어졌다.
- 초기에는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경비와 관리를 공동으로 담당하는 말 그대로의 ‘공동경비구역’이었으나, 1978년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 이후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이남 지역은 유엔군 측이, 이북 지역은 공산군 측이 분리 경비하게 되었다.



판문점 전경(2009)

-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JSA 비무장화 및 자유왕래가 합의되었고, 이에 따라 JSA 감시초소 및 각종 화기가 상호 검증 아래 철수됐으며, 현재는 자유왕래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빌리 조엘의 팝송 속에 등장하는 판문점

Piano Man, My Life, Honesty, Just the way you are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한국인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빌리 조엘’. 그가 1989년에 발표해서 큰 인기를 모은 ‘We didn't start the fire’는 2주간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한 명곡으로, 미국판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We didn't start the fire’는 1949~1989년까지 총 40년간 전 세계를 움직인 주요 사건, 사고, 인물을 가사로 노래하고 있다. 순식간에 흘러가는 가사 중에서 한국 관련 가사는 4개로, 그 중 하나가 판문점이다. 노래 시작 후 40초가량 지나면 가사로 “텔레비전, **North Korea, South Korea**, 마릴린 먼로, 로젠버그, H-Bomb(수소폭탄), 슈거레이, **판문점**”이 차례로 나온다.(이후 ‘**Syngman Rhee**(승만리) 등장) 이는 1950년과 1951년의 주요 이벤트와 인물을 나열한 것이다. 1950년에 텔레비전이 확산되었고, 남북한 간에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으며, 마릴린 먼로의 인기는 최절정이었다. 1951년에는 수소폭탄이 개발되었고, 슈거레이가 웰트급 권투 챔피언이 되었고, 판문점에서는 정전협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판문점 히스토리

- 현재 판문점은 휴전회담 및 정전협정 조인식을 한 곳이 아니다. 1951년 6월 휴전회담이 처음 시작된 장소는 개성 북쪽 고급 요리점 내봉장(來鳳莊)이었다. 협상 진행 중 주변 북한군이 의도적인 무력시위를 하자, 유엔 측은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며 회담 장소 이전을 요구했다. 북한군 측은 널문리 주막마을을 제안하였으며, 유엔군 측이 이를 수용하였다. 널문리는 길가에 초가집 단 4채뿐인 마을로, 그중 하나는 주막 겸용 상점이었다.
- 널문리는 널빤지로 된 문이 있는 동네라는 뜻의 한글 이름이다. 널문리가 정전협정 장소로 결정되면서 참전국인 미국과 중국으로 인해 각각 영어와 중국어 표기가 필요했는데, 중국어 표기를 위해 지명인 널문을 한자 판문(板門)으로 하고 회담장 건너편에 있던 주막 겸용 상점에서 점(店)을 합성하여 ‘판문점



판문점 전경(1975)

(板널빤지 판 / 門문 문 / 店가게 점)’이라는 명칭이 결정되었다.

- 휴전회담 종료 후 조인식에 맞춰 북한 측은 약 200평 규모의 목조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이곳이 본래 판문점 또는 구 판문점이다. 구 판문점은 현재 판문점(신 판문점)에서 10시 방향, 직선거리로 약 1km 남짓 떨어져 있다.

협상의 대명사, 판문점

현재는 유엔군과 북한군 사이의 정전협정과 관련된 각종 협상을 진행하는 판문점은, 조선 시대에는 판문점 지역을 둘러싸고 수백 년간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는 협상이 진행되었던 곳이다.

판문점 지역의 지명은 송남면(松南面)으로, 인근 큰 소나무숲인 송림(松林)에서 영향을 받았다.

송남면의 행정구역은 고려 시대 개성부(開城府) 소속에서 조선 초기 장단부(長湍府)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인구에 비해 땅이 좁은 개성부에서는 개성 유수(留守, 지금의 시장(市長))들이 송남면을 원래 소속인 개성부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수백 년 동안 지속했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조선 말까지 개성부 소속이 되는데 실패하였다.

6.25 한국전쟁 이후 판문점 이북은 북한 관할의 ‘개성특급시 판문군’, 판문점 이남은 남한 관할의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이 되어 아이러니하게도 6.25 한국전쟁과 정전협정을 통해 이들의 노력은 50%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구 판문점 건물의 현재 모습

북한에서는 기존 구 판문점 건물을 현재 '평화박물관'으로 운영 중이며, 평화박물관 건물 지붕에 파블로 피카소의 비둘기 그림을 크게 그려 전시하였다. 북한은 왜 굳이 피카소의 그림을 선택했을까? 피카소는 1944년 프랑스 공산당에 입당할 정도의 열혈 공산주의자였다.

판문점(널문리) 지명 유래설

'널문리'라는 지명에 대한 유래는 3가지 설이 있다.
 첫째는 마을에 널빤지로 만든 대문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설이다. 두 번째 가설은 부근에 널문다리(판문교板門橋)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세 번째 가설은 지형이 워낙 넓어서 넓은 마을[里]이라는 뜻으로 넓은리 => 널븐리 => 널문리로 변천되었다는 것이다.

판문점(널문리) 지명에 관한 잘못된 기존 역사 상식

판문점 지명에 대한 설 중 하나는 임진왜란설이다. 원래 동네 이름이 순우리말로 '널문리'였는데,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의주로 피신하면서 강을 건너고자 했으나 배가 없자 백성들이 널빤지로 만든 문을 뜯어다가 임시로 다리를 만들었다는 일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전 실록에도 이미 판문(板門)이라는 용어는 출현하고 있다.

장벽을 넘어 '사람'이 넘나드는 통로

- 판문점은 휴전 이후부터 2000년대 동해선과 경의선 도로가 개통되기 전까지 남북 왕래가 가능한 유일한 통로였다.
- 전쟁 직후 판문점에서는 대규모 포로교환이 이루어졌다. 1953년 8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82,000여명의 북한군 및 중국군 포로가, 13,000여명의 유엔군 포로가 판문점을 통해 삶의 터전으로 되돌아왔다.
- 또한 1985년 9월 이산가족고향방문단과 남북 교환공연을 위한 예술공연단(남북 각 151명) 참여자들은 민간 차원에서 판문점을 통해 남북을 최초로 왕래하였다.
- 이후 1998년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소떼방북을 끝으로, 2000년대 들어 이러한 왕래는 동해선 육로나 경의선 육로로 대체되었다.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방문(1985)



소떼 방북(1998)

군사적 공간에서 남북 간 대화와 접촉의 장소로

- 1970년대부터는 남북 대화와 접촉 창구로서 기능이 지속되었다.
- 2019년 9월 현재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 예비회담을 시작으로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군사회담 등 총 376회의 남북 당국간 회담이 판문점에서 이루어졌다. 실무회담과 예비회담은 판문점 내 중립국감시위원회 회의실에서, 본회담은 북측의 판문각과 우리측의 자유의집에서 주로 개최되어 왔다. 2018.4.27. 평화의집 남북정상회담, 5.26 통일각 남북정상회담 또한 이곳에서 열렸다.



남북적십자 예비회담 (1971.9.20.)



남북정상회담(2018.4.27.)



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2018.0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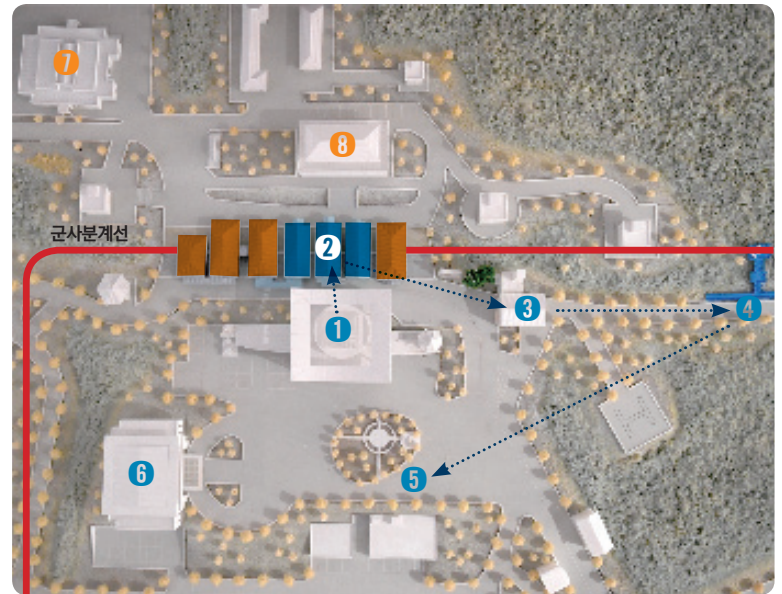
한반도 평화를 견인하는 평화관광의 명소

- 2018년 들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바람이 불면서 판문점은 평화의 초석을 다지는 역사적인 장소로 새롭게 조명되었다. 2018년 4월 판문점 내 평화의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이 장소에서 역사적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약칭 4.27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었다. 판문점 선언은 선언의 명칭에 ‘판문점’을 명시함으로써 판문점의 역사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라는 새로운 지층을 쌓아올렸다.
-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로 2018년 9월 개성에 남북공동연락 사무소가 개소되었고,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9.19평양공동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장지대화’가 추진 중이다.
- 2019년 6월 판문점은 다시 한 번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남북미 세 정상에 회동하고, 현직 미국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는 이벤트가 펼쳐지면서, 판문점은 한반도 평화를 견인하는 상징 공간이 되었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던 평화의집, 북미정상회담이 있었던 자유의집, 남북정상이 동행 산책을 했던 도보다리 등은 내외의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관광 명소로 자리잡았다.



견학 코스 안내

자유의집 → 군정위 회의실 → 공동기념식수 장소 → 도보다리 → 정원



유엔사측 북한측

- 1 자유의집 2 군정위 회의실(T2) 3 공동기념식수 장소 4 도보다리
- 5 정원 앞 6 평화의집 7 통일각 8 판문각



자유의 집

남북한 사이의 연락 업무는 과거 남측은 자유의 집, 북측은 판문각에서 수행했다. 지금은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자유의 집과 판문각은 전화와 팩스로 의사소통을 하며, 자유의 집과 판문각 뒤편에는 회담장 건물이 각각 별도로 존재한다. 남측 회담장은 평화의 집, 북측 회담장은 통일각이라 불린다.

남북한 체제 경쟁의 흔적

자유의 집과 판문각을 통해 남북한 체제 경쟁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1965년 남측은 (구) 자유의 집을 준공했는데, 2층짜리 쌍둥이 건물 사이에 팔각정이 위치하며 면적은 86평이었다. 이에 1969년 북측은 (구) 판문각을 준공하고, 면적은 120평으로 하게 된다. 1994년 북측은 같은 자리에 (신) 판문각을 신축한다. 1·2층 260평과 3층 130평으로 커지게 된다. 1998년 남측은 (구) 자유의 집 자리에 (신) 자유의 집을 신축한다. 지상 4층, 지하 1층짜리이며, 총 면적 1,500평이다. 작은 건물 2동짜리가 큰 건물 1동짜리로 바뀌었으며, (구) 자유의 집 가운데 위치한 팔각정은 (신) 자유의 집 1층 동쪽 끝으로 이전했다. 남양주종합촬영소에는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를 찍었던 판문점 세트장이 있다. 판문점 세트장의 팔각정 위치는 (구) 자유의 집처럼 작은 건물 2동 중앙에 있는데, 이는 판문점 세트장이 세워진 때가 1997년으로 (신) 자유의 집 준공(1998) 1년 전이기 때문이다.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T2)

- 정전협정 체결 후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 회의실 위치로 논란이 있었다. 북한은 기존 구 판문점 건물을 사용하자고 주장한 반면, 유엔 측은 정전협정의 군사분계선 위에 새로 설치하자고 주장하였다. 결국, 현재 위치에 새 건물이 신축되었다.
- 군사분계선 위의 가건물 7동이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이며, 그 중 회색 4동은 북한 측, 하늘색 3동은 UN 측 관리책임 하에 있다. 하늘색 3동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각각 T1, T2, T3로 불린다. T는 임시로 쓰는 가건물 즉, 'Temporary(임시)'라는 뜻으로, 세계 최장의 정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T1는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비공개 회의), T2는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공개 회의), T3은 군사정전위원회 소회의실(비공개 회의)이다.
- 관광객은 T2만 출입 가능하다. T2 회의실은 남북한이 공유하며, 따라서 양측 관광객 모두 입장 가능하다. 그 속에서 서로 만나는 어색함을 피하기 위한 기발한 방법은 선착순 원칙, 즉 먼저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먼저 구경하는 것이다. 남측 관광객이 들어가면 T2는 남측이 경비하게 되고, 남측 경비병 1명은 북측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문 앞에서 경비를 선다. 나머지 경비병 1명은 가운데 회담 테이블의 한쪽 끝에 서는데 이때 군사분계선이 몸의 중심을 통과하게 된다. 북측 관광객이 들어가면 북측 경비로, 북측 경비병도 남측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문 앞에서 경비를 선다.

- 회의실 한가운데 회담 테이블이 있으며, 테이블 가운데가 군사분계선이다. 원래 공동경비구역 내에는 군사분계선이 없었고 상호왕래가 자유로웠으나, 1976. 8. 18.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으로 JSA 내에도 군사분계선이 생기게 되었다. 원칙적으로 남북은 군사분계선을 넘을 수 없게 바뀌었고, T2가 유일하게 군사분계선을 넘을 수 있는 곳이다.
- T2와 T3 사이길(폭 4m)은 자유의집과 판문각 정중앙에 위치하며, 남북 정상 및 남북미 정상이 만난 곳이다. 방북 인사가 돌아오거나 북측 인사를 송환할 때도 주로 이 곳을 이용한다.



공동 기념 식수 장소

- 2018. 4. 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북 정상이 함께 기념 식수를 한 곳이다. 수종(樹種)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생 반송(키가 작고 가지가 옆으로 퍼진 소나무)이다. 위치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1998년 소떼 몰고 방북했던 소떼 길 옆이다.
- 남북 평화와 화합의 의지표명을 위해 한라산 흙과 백두산 흙, 한강물과 대동강물을 뿌렸으며, 삽자루는 북한에 흔한 침엽수, 삽날은 남한의 철로 제작하였다.
- 표지석 문구 ‘평화와 번영을 심다’는 문 대통령이 직접 정한 것이다. 공동식수 행사는 남측이 제안하고 북측이 모두 수용하였다. 공동기념식수 후 문 대통령은 “소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심은 것”, 김정은 위원장은 “어렵게 찾아온 북과 남의 새봄을, 그 이후를 소중히 하고 잘 키워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도보다리

- 중립국감독위원회 캠프는 원래 2곳이다. 군사분계선 남쪽에 스웨덴과 스위스의 캠프가 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인근(T1, T2, T3의 동쪽)에 위치하며, 중감위 캠프와 T1, T2, T3 사이에는 습지가 있다. 군사분계선 북쪽에는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의 캠프가 있었으나, 1990년대 동구권의 붕괴 및 민주화 이후 북한이 축출해 버렸다.
- 도보다리는 중립국감독위원회 캠프에서 T1, T2, T3로 갈 수 있는 지름길로, 이동 동선을 줄이기 위해 습지 위에 건설되었다. 걸어 다니는 다리라는 뜻에서 ‘Foot Bridge’로 불렸는데 그대로 번역하여 ‘도보다리’가 되었다. UN 측 시설물이기에 다리 색깔은 UN 색인 하늘색으로 칠했으며, 최근에는 Blue Bridge라고도 한다.
- 도보다리는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친교 산책으로 유명해졌다. 원래는 길이 50m, 폭 1.5m으로 보통체형의 성인 두 사람이





나란히 서면 딱 차게 되어, 두 정상이 나란히 서기에는 불편했다. 4.27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난간 모양을 일자로 바꾸고 다리 폭을 넓혀 0.5m의 공간을 더 확보하였다. 도보다리 전체 모양도 처음에는 단순 일자형이었으나 정상 간 미팅공간 확보를 위해 중간을 돌출시켜 T자형으로 변형했다.

- T자형으로 만든 또 다른 이유는 군사분계선 표식물까지 가기 위함이다. 정상회담용 ‘티 테이블’ 옆에는 심하게 녹슨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다. 원래는 ‘군사분계선’ ‘0101’이라고 쓰여 있었으나, 부식이 너무 심해 현재는 판독이 어렵다. 군사분계선 표식물은 임진강하구에서 동해안까지 200m 간격으로 설치되었고 0001~1292번까지 번호가 붙어 있다. 도보다리 옆 표식물은 101번째라는 뜻이다.
- 정상회담 당시 유엔사 측에서는 군사분계선 표식물을 새것으로 교체하려 했으나, 우리 측에서 분단의 아픔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옛것을 그냥 놔두기로 하였다.

평화를 향한 만남의 ‘다리’가 되다

-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난 공간적 가치 외에도 관광자원으로서 판문점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 동서로 백령도에서 고성에 이르는 DMZ 평화관광 벨트와 남북으로 평양 고구려 유적, 개성 고려 유적, 서울 조선 유적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벨트가 교차하는 곳이 바로 판문점 일대이다. 또한 인천공항에서 접근이 용이할 뿐 아니라 경의선 철도 및 도로를 통한 대륙과의 연결도 가능한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다.
- 조선 시대 옛길(6대로)의 대표인 제1로 의주대로(義州大路)는 서울과 의주를 잇는 길로 판문점을 통과하던 국가대표급 옛길이다. 경복궁을 출발하여 돈의문, 구파발, 벽제관, 임진나루를 거친 후 임진강을 건너면 판문점을 통과해 개성, 평양, 안주, 광산, 의주에 이르는 길로 중국으로의 공식 사신길이기도 하였다.
- 현재 우리가 갈 수 있는 최북단은 판문점까지이나, 다시 이어져야 할 의주대로의 중심에 판문점이 있다.
- 남북경계선 위의 연결 통로 기능만이 아니라 남과 북,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평화의 가교’로써,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판문점을 통해 구체적 결실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

판문점을 소개합니다

발행처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TEL 02) 901-7162 FAX 02) 901-7029

발행일 2019년 9월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www.uniedu.go.kr